



서울 청계광장 대형 동전앞을 시민들이 걷고 있다.

한국은행, 동전 없앤다

“잔돈은 전자지갑 충전·계좌이체로 입금”

한국은행이 동전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동전없는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2015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동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금융기관과 전문 IT 업체 등과 공동연구그룹을 구성하고 올해 중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전없는 사회의 추진 배경은 소비자 등이 동전을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한은의 동전발행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은은 현재 편의점이나 마트, 약국, 커피숍 등 동전을 많이 사용하는 가맹점에서 잔돈을 동전으로 거슬러주는 대신 소비자의 전자지갑 등에 충전을 해주거나 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식 등을 구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액결제망이 발달된 만큼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마련 중이다. 박이락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현재 워킹그룹을 구성해 방안을 논의 중이며 금년 중 연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본격적인 추진 시기를 2020년으로 잡고 있다.

이와 함께 한은은 전체 지급결제 시스템의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지급결제인프라 확충과 개선에 나선다.

지난 1994년 도입된 한은금융망의 국외 인프라와 연계 기반 마련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최신 정보 기술(IT) 도입해 2020년까지 '차세대 한은 금융망'을 재구축하기로 했다.

또 내년 중에는 금융기관간의 원활

한 자금이체와 고객 거래자금 이체를 지원하기 위해 한은금융망 운영시간을 연장 추진할 계획이다.

소액결제망의 차액결제도 하루 중 여러차례로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이 추진된다. 현재 소액결제의 최종결제는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 한 차례에만 이뤄지고 있어 실제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리스크에 노출되는 시간이 긴 상황이다.

이올러 국내 금융시장인프라의 국제 기준(PFM) 도입에 대비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자결제 등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에 대해서는 잠재위험 등을 점검해 하반기 중 통계를 확충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은은 디지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활용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고, 금융정보화 추진협의회와 범위를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 과정에서 지급결제 시스템 참가 등을 지원한다.

/안진수 기자

체크카드 발급, 신용카드 3년째 추월

격차는 2226만장으로 확대 부가서비스·세제혜택 원인

지난해 체크카드 발급이 3년째 증가세를 보이며 신용카드와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결제수단으로는 현금보다 신용카드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5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1억1536만장으로 전년(1억893만장)보다 5.9% 증가했다. 반면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9310만장

으로 1년 전보다 77만장(0.8%) 증가에 그쳤다.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지난 2013년 신용카드를 처음 추월한 뒤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양카드의 발급장수 격차는 지난 2013년 138만장에서 지난해 2226만장으로 확대됐다.

체크카드가 인기를 끈 것은 신용카드와 유사한 부가서비스 등이 제공되면서도 신용카드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체크카드의 일평균 이용액은 지난해 3680억원으로 신용카드의 이용액 1조6830억원에 비해 크게 못미쳤다.

한편 지급 수단으로 가장 선호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은이 전국 19세 이상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급수단별 이용비중(건수 기준)에서 신용카드가 39.7%를 차지해 현금(36.0%)을 추월했다. 다음으로 체크·직불카드(14.1%), 선불카드(6.0%), 계좌이체(3.4%)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50대 이상 고령층과 소득 3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서는 신용카드보다 현금 이용비중이 높아 다소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평소 지갑 속에 보유하는 현금은 평균 7만4000원으로 1년 전 평균 현금보유액(7만7000원)보다 3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안진수 기자

만성지구 공동주택용지 27일 입찰마감

첨단산업지원용지 포함

전주 만성지구 공동주택(연립) 및 첨단산업지원용지 1필지의 입찰서 제출 기한이 오는 27일 임박해 업계 이목을 끌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지난 8일 전주 만성지구 공동주택(연립) 및 첨단산업지원용지를 공급 공고했다.

공동주택(연립)용지 1필지는 공급 규모 185세대, 공급예정가격은 m²당 62만4,000원이며 만성지구 내 다른 공동주택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이다.

첨단산업지원용지 역시 공급예정가격이 m²당 92만7,000원 선으로, 지난해 공급한 근린생활시설용지나 준주거용지의 공급예정가격 보다 약 24%~30% 저렴하고, 업무시설 용지에 비해서는 약 42% 저렴하다.

현재 첨단산업지원용지 16필지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제외) 및 판매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등 다양한 건축물용도가 허용된다.

이번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통해 필지별로 진행되며, 입찰신청 및 입찰서 제출은 오는 27일 오후 4시까지다.

낙찰자 결정은 이달 28일 필지별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로 결정되며, 계약체결은 오는 5월 9~13일까지 진행된다.

분양관련 내용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를 참고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보상관리부(063-280-7421)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 기자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 29일부터 TTA에서 진행

이동통신용 주파수경매가 오는 29일부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진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KT·SK텔레콤·LG 유플러스에 대한 주파수 할당신청 적격 여부 검토절차를 완료하고 3개사 모두 적격대상으로 2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주파수경매 참여대상이 확정됨에 따라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경기 성남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주파수경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경매는 동시오프입찰(50라운드)과 밀봉입찰 혼합 방식으로 한다. 동시오프입찰은 경매자가 낮은 가격부터 시작해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며 최후까지 남은 구매자에게 파는 방식이다.

50라운드(낙찰과정)까지 동시오프입찰을 진행해도 낙찰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한 차례 입찰금액을 제시하는 밀봉입찰로 낙찰자를 정한다. /안진수 기자

전북銀장학재단, 다문화가정 한옥마을 투어 실시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이사장 김영구)은 지난 23일 전주한옥마을 일대와 한옥생활체험관에서 '2016 다문화가정 한국문화 투어' 행사를 성황리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가정 아동들이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체험함으로써 한국문화에 많은 관심을 갖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조상들의 창고와 슬기를 체득하고 미래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캄보디아 출신 어머니와 아동 및 대학생 40여명은 멘토와 멘티로 참여해 전주한옥마을 일대 유적지에서 퀴즈를 풀어보는 '한옥마을 미션 투어', 전통 식문화 체험의 일환

으로 '비빔밥 만들기 체험'과 '전통한과 만들기 체험' 등에 열성적으로 참여해 행사가 성황을 이뤘다.

특히, 도내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캄보디아 출신 대학생들이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다문화가정과 함께 미션투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문화체험을 같이 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입실에 살고 있는 도소영 씨는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전북은행의 도움으로 2014년에 친정에 다녀올 수 있어 감사했다"면서 "이번 문화체험 행사를 통해 여러 캄보디아출신 여성 및 대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전격 폐지

홈플러스가 그동안 시행해왔던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전격 폐지했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전입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가 취임한 이후 3년간 시행돼왔던 제도다. 홈플러스 물건이 이마트를 비롯해 오픈마켓 등과 비교,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홈플러스가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폐지한 이유는 불필요한 가격경쟁을 통해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감성전략 대표의 의도가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성주 기자

농협 군산시지부-농기센터 초등학생 농업체험장 조성

농협 군산시지부(지부장 김규창)와 농업기술센터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체험장 조성사업(스콜팜 사업)이 25일 구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29일까지 8개 초등학교에서 운영에 들어갔다. 스콜팜 사업은 학생들과 농협 시니어 사업단이 공동으로 텃밭을 관리하며 생육 전 과정을 관찰, 체험하며 수확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 4개학교와 시작한 스콜팜 사업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어 올해부터 8개 학교로 증가했다. 이번 스콜팜 체험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교내에 마련된 체험장에 고추, 가지, 방울토마토, 감자, 고구마, 땅콩, 상추, 오이, 옥수수, 호박 등을 직접 심었다.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은 "직접 가꿀 수 있는 텃밭이 생긴 것이 즐겁다"면서 "소중하게 가꾸 친구들과 맛있게 나눠 먹겠다"고 입을 모았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부산도시농업박람회 참가

농업용 로봇 업체 홍보

(재)전북테크노파크(원장 백두옥)는 전라북도 농업용 로봇 업체와 함께 21~24일까지 부산 시민공원에서 개최한 '제12회 부산도시농업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농업을 주제로 열렸고 첨단농업분야 융복합 과학 기술을 응용한 농업용 로봇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였다.

전북은 농업용 로봇 3종 중 도시농업에 적합한 (주)로보닉스의 시설 화훼 운송로봇과 (주)케이에스에프의 반자동 방제로봇을 선보였다.

'시설화훼 운송로봇'은 다중 경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농업용 이송 로봇이다.

위치 인식을 통해 작업자를 따르면서 불필요한 이동 없이 화훼 채집이 가능하고, 200kg 이상의 고중량 화훼를 집하 장소까지 자율운송함으로써 작업자의 편의성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다.

반자동 방제로봇은 농작물 성장을 위해 주기적으로 방제 및 주수(注水)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인체에 유해한 농약 중독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고 작물의 품질 및 생산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품이다. /신광영 기자

한분 한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